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5. 2.(월)

■ (언론 동향) 2022.5.1. "매일경제" 보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값 급등...원재료 염화칼륨 2.8배 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오른 비료 가격이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산출한 비료가격지수(2010년=100)는 지난 3월 237.6으로 전년 동기의 2.3배로 높아졌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비료 품목 중 하나인 염화칼륨의 경우 지난 3월 1t에 562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8배에 달했다. 요소는 1t에 907달러로 전년 동기의 2.6배였다.

비료 가격 상승에는 러시아발 공급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료의 3요소 중 하나인 칼륨은 러시아·벨라루스가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비료의 원료 중 하나인 암모니아는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다.

비료 가격 상승은 비료 사용 감소로 이어지고 농작물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량 부족이나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염려가 나온다.

< 도표 = 김규식 특파원 >

■ (언론 동향) 2022.5.2. "농민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 가격 동결

- 농협, 농가 경영비 절감위해
- 국제시세 인하 땀 즉각 반영

무기질비료 가격이 2·4분기에 동결된다.

농협경제지주는 4월27일 농민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2·4분기 무기질비료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올해 무기질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분기별 가격 조정제를 도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심해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원자재 실구매 가격을 반영해 분기별로 비료 가격을 책정하기로 한 것이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5. 2.(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비료업체들은 상반기 원자재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에 농협과 비료업체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2·4분기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1% 올랐다.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은 1월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민별 지원 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며, 신규 농민, 재배면적 증가 농민, 작목전환 농민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표준소비량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 차액 지원으로 농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4분기 가격은 동결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가격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즉각 반영해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장재혁 기자 >